

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.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.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. (글책임: 편집자) •보낼곳: 우 110-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-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'길을 묻는 이에게' 담당자 앞 •인터넷: www.hanmaum.org 또는 한마음선원 •FAX: (031)470-3116



길을 묻는 이에게

아주 진실히 자기를 믿는데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

참된 도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

문)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된 도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.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을 갖고 참된 도의 길을 갈 수 있는지요?

답) 우리가 지금 종교라고 해서 믿고 다닌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.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. 우리 자신들, 이 껍데기인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살고 있고 이끌어 가는 내가 있으니까 꼭 그것은 서로가 상봉하고 받아야 되겠다.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믿어야 되겠다. 믿지 않는다면 나를 누가 믿으며 내가 딴 사람을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. 그래서 나를 내가 믿어서 발견할 수 있는 거. 진짜로 믿지 못한다면 모든 게 허사죠. 이 세상에 모두 믿을 거는 나 하나를 잘 믿을 수 있어야만이 전부 믿을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그렇게, 일로 가는 길도 일로 올바르게 가게끔, 자동적으로 되게끔 이렇게 마련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법이 얼마나 자동적이고 얼마나 신비한지, 정말이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.

여러분이 절에 가 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살아 보시지만, 인생은 살아 보면 살아 보는 대로 맘대로 말할 수도 없고 맘대로 들을 수도 없고 맘대로 할 수도 없고, 만 날 간혀 있는 거나 같습니다. 여러분이 항상 곳곳마다 가는데 누구를 만나는 데마다 섭섭지 않게 하고 섭섭지 않게 행동하고 항상 웃고 말할 수 있고, 어떠한 성별 일이라도 성 안 내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. 모두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성내고 말할 것을 성 안 내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길이 잘 가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을 아주 평탄하게, 편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. 이 마음으로 길을 만들 수 있다 이 소립니다.

우리가 파고 자르고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서 길을 내는 것은 길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것은 내가 진짜 살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 사람 공장에서 하는 일이지요. 이 지구가 사람 만드는 공장이라면 말입니다. 사람 만들 어질 때까지 얼마나 겁을 지내면서 고통을 받는 줄 아십니까? 사람 돼 가지고만 고통 받는 게 아니죠. 수없이 모습을 바꿔 가면서 나왔는데 또 다시, 또 다시 우리가 공부해 우습게 생각하고 해서 지금 살아서 느껴보지 못하고, 지혜롭지 못해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알

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냥 도로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모습을 가지고 또 나온다면 그 모습을 벗기 위해서 또 열어야 되니까요.

아주 쉽게 생각하면 자기 믿어야 부처님이 믿어지죠. 그렇죠? 부처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“애야, 아픈데 일어나지 마라. 내 모습을 보고 일어나지 마라. 네가 너를 진짜로 믿는다면 나의 모습 없는 나도 네가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느니라.”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도 진짜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인생은 사는 게 이런 거야. 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가신다면 정말 인생은 거들거들 찾지 못해요. 진짜 돈을 쥐고 다니면서 나를 찾으려고 찾

을 수 없고 내 자리를 찾으려고 찾을 수 없어요. 여러분의 자리는 이 우주 허공 중에 어떤 자리도 내 자리 아님이 없는 거예요, 알고 본다면. 그런데 그걸 몰라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수레바퀴에 그냥 엉켜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. 우리가 그 도리를 안다면, 우리 지구의 에너지가 다 없어져서 인제 수억 년을 가면서 에너지가 된 것을 우리가 그냥 쓰고, 쓰고만 사니까 없어질 수밖에요. 그런데 우리 마음공부는 이 지구의, 즉 말하자면 벽을 벽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. 이런 문도 문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. 그래서 문 없는 문을 알아야 된다. 이 보폭도 문이고 이 천장도 문이고 다 이게 문이 아니 될 수 없죠. 글썽 어디든

지 그렇게 내가 자유스럽게 발판을 디딜 수 있다. 허공도 딛고 날 수 있다.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,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모든 걸, 그걸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. 말로는 다 못해요. 여러분이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하고 해 보지도 못했으니까 거짓으로 생각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 다 못해요. 그러나 여러분이 할 양으로 예를 쓰니까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.

정말 진짜로 가는 데마다, 곳곳마다 남을 만나는 데마다 그렇게 하라. 그렇게 웃고 살아라. 그렇게 빨리빨리 생각나는 대로, 그냥 막 우그러져서, 즉 말하자면 조상이라든가 무슨 일이 있어서 집안이 남가가 났다 이러더라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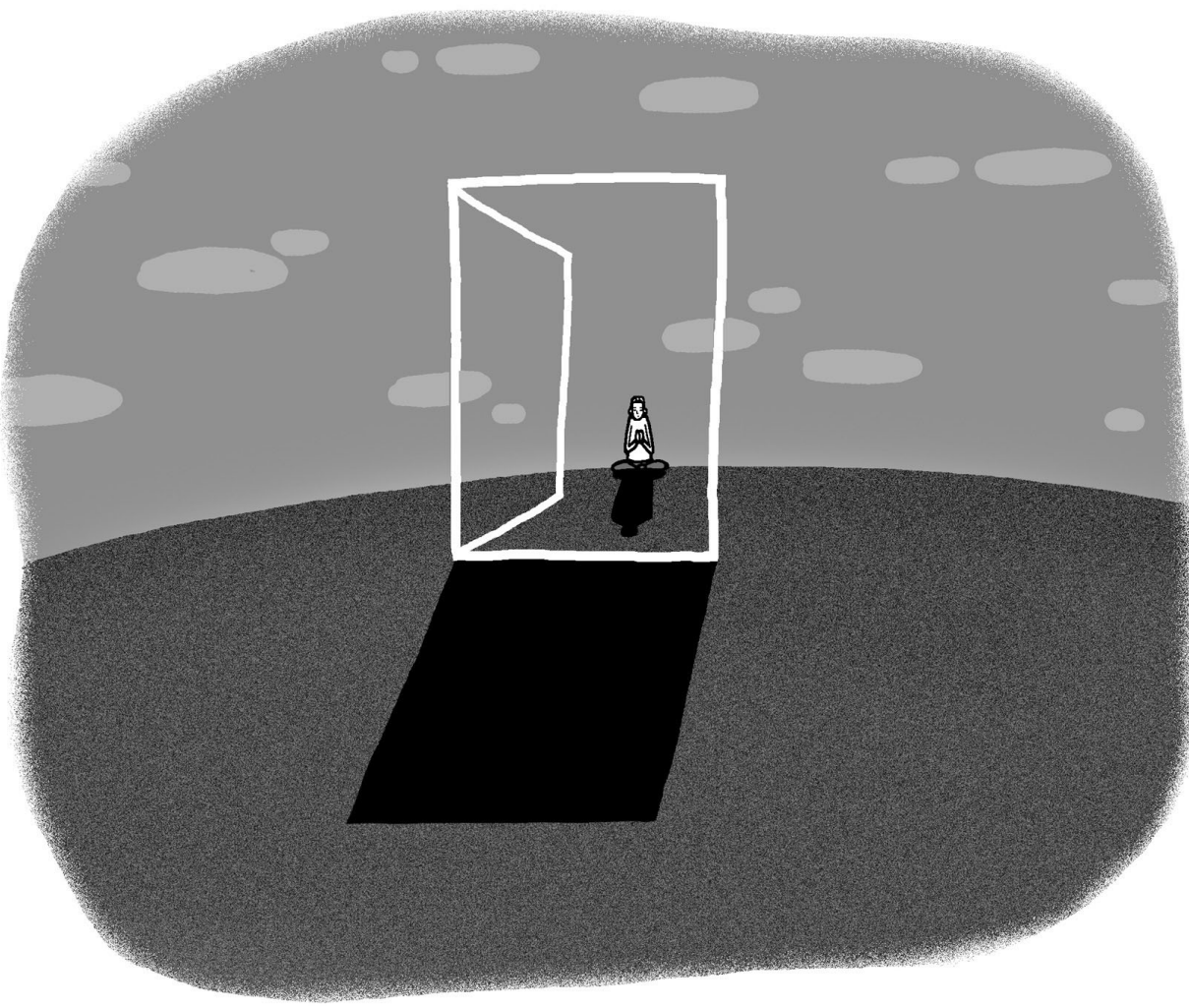


그림 · 최주현

빨리 패라. 빨리 패야지 그걸 우물쭈물하고 이거 생각 저거 생각 하다가는 퍼지도 못하고 그거를 해결하지도 못해요.

그래서 몸은 여기 있더라도 저 어디에 무슨 일이 있다 이럴 때도 그냥 거기 가서 해요, 그냥. 여기서 하면 거기 내 몸이 열로 변형을 해서 하더라도 다 할 수 있으니까. 내 몸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무라도 인연이 있으면 모습이 돼서 다 서로가 맞먹어 들어가니까. 이 소리 거짓말로 알지 마세요.

그래서 여러분이 경을 보고 외로 꿩고 바로 꿩고 안다 하더라도 그거는 도가 아니니라. 이렇게 말씀하신 이치가 이거를 알아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게 물질 세계가 50%라면 무의 무심세계가 50%입니다. 무의 세계의 무심. 그런데 언제나 내가 있는 데에 있는 거지 내가 없는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. 모두 각자 내가 있기 때문에 불성이 있는 거고 자불이 있는 거고, 그 자불이 자기 알아지면, 상봉을 하게 되면 연등불이 되고 그렇게 화합합니다. 그런 수없이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생각으로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치.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.

자문자답 하는 식으로 공부하는데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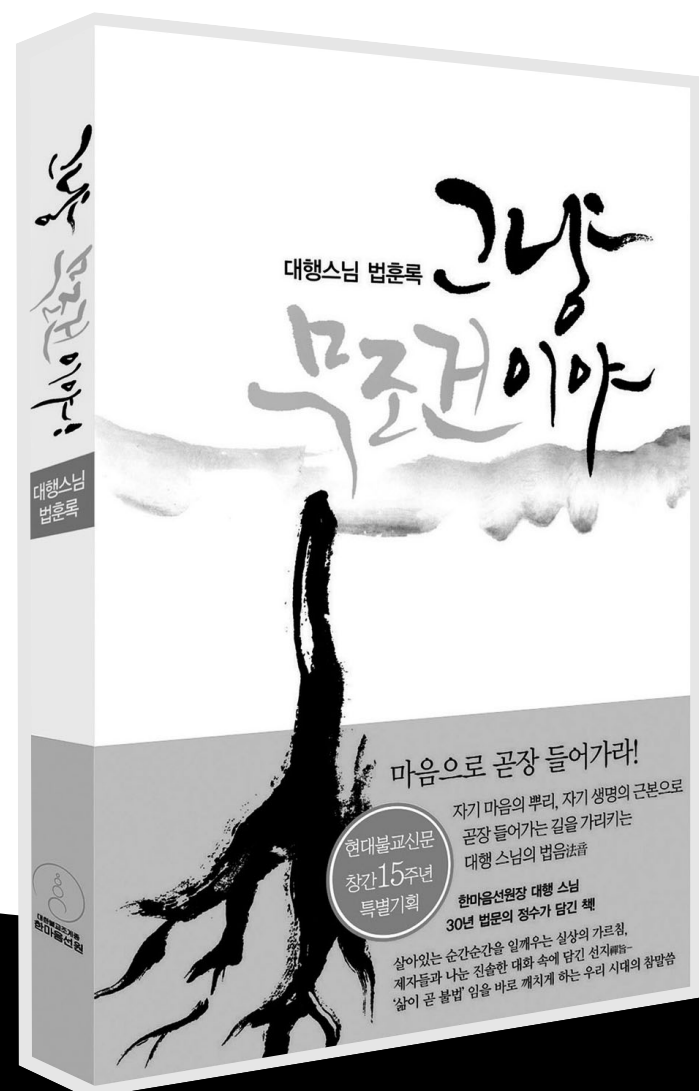
문) 큰스님께서 어린 시절 '아빠'와 대화하면서 주인공의 이끄심을 받았듯이 저도 제 자신과 자문자답하는 식으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묻는 것도 제가 묻고 대답도 제가 하는 건데 그 대답이 진짜 주인공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문자답 하는 방법이 바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.

답) 처음에 얘기가 걸음마 떼어 놓을 때에 뭐, 잘 걸을 줄 알고선 걸음마 떼어놓습니까? 넘어질 줄 알고 걸음마를 떼어 놓나요? 그냥 넘어지든지 안 넘어지든지, 잘되든지 못되든지 그냥 놓고 걷는 거죠. 그냥 걷다 보면 아주 잘 걸어지게 돼 있습니다.

그러니까 자문자답, 이것도 쓸모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문자답이라는 거 말로 자문자답이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영혼이 자기한테 다 있습니다. 생명의 근본 불성이

30면으로 계속

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!



자기 마음의 뿌리,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
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
대행스님의 법음 法音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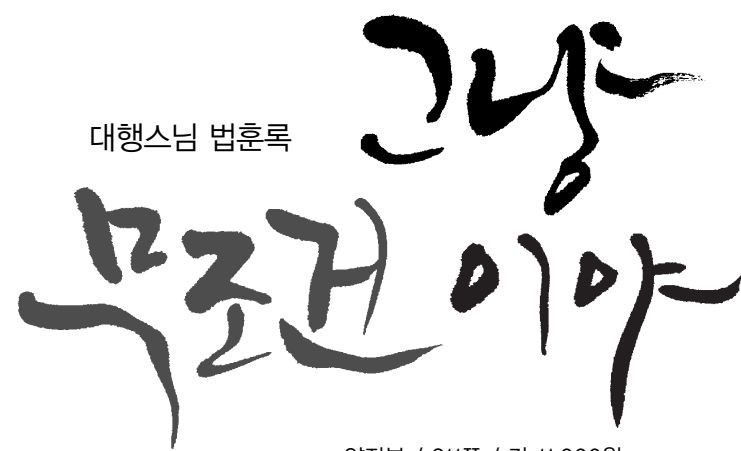
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-
'삶이 곧 불법'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

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.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.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.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,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.

- 본문 중에서

주문은 현불삼!
02)2004-8216

농협 053-01-269062
(주)현대불교신문사



양장본 / 211쪽 / 값 11,000원